

# 장흥군, 돌봄놀이터교실 성과 커

### 올바른 식습관·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장흥군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장흥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아동(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한 돌봄놀이터교실'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아동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 비만 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비만위험요인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맞벌이·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채소와 천재지기, 건강간식만들기, 건강음료 알아보기 등 건강 식습관 형성 영양프로그램과 비석치기, 협동레기, 꼬리떼기 등 놀이형 신체활동프로그램 등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만도, 영양지식, 생활행태, 신체활동량 변화 등을 평가한 결과, 체질량지수(BMI) 감소와 과체중·비만 아동의 비만율이 5.2%p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영양지식은 참여 전 61.3점에서 76점, 생활행태점수는 65점에서 80.7점, 신체활동 지식 또한 48.9점에서 60점으로 향상되어 참여아동의 61.2%가 평균 1.2배 개선되었다.

장흥군보건소장은 "성인비만으로 이행가능성이 높은 소아비만의 예방을 위해 아이들의 생활터인 학교와 지속적으로 연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화순열린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개최

화순열린도서관이 9월을 맞아 한 달간 독서의 달 행사를 펼친다. 별빛 독서 캠프, 독서체험프로그램, 마크라메, 가족공예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한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상시 행사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작성해 우체통에 넣으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배달하는 '9월의 크리스마스', 지난해 발행한 잡지를 무료 배부하는 '고월 잡지 무료 나눔', 두 배로 대출 행사를 진행한다.

'별빛 독서 캠프'는 지난 5월 운영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숲속 독서 캠프'에 이어 기획된 캠프다. 초등학생 이상 자녀와

함께 참가하는 화순 군민 10가족을 모집해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다.

망원경 조작 실습, 별자리 이론과 스토리텔링,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 영화상영과 함께하는 바비큐 파티, 송편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독서 체험 프로그램, 마크라메 원데이 클래스, 가족공예 원데이 클래스, 책갈피 및 키링 만들기 등 도서관 대출증 카드 지갑 만들기 등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독서의 달 행사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문화예술과 도서관팀(☎379-3367)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 영광군, 지역공동체일자리

### 신규사업 참여자 모집

영광군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신규사업 참여자 33명을 오는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 1억 5천만 원을 신규 확보하면서 긴급하게 추진하게 됐다.

추가모집 분야는 신규사업으로 군서면의 100리 꽃길 조성사업과 상하수도사업소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환경정비사업이다.

사업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영광군민이며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나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약 4개월간 대상 사업지에서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 지급된다.

근로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이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25시간 이내이다.

참여자 모집기간은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실직 및 휴·폐업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350-4612)으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 담양군,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 '총력'

### 활엽수류 약 3000여 주 방제작업 집중

담양군이 최근 계속된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미국흰불나방 등의 돌발해충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흰불나방은 벼줄기나, 뽕나무, 밤나무 등 활엽수에 피해를 주며 유충이 어릴 때는 실을 토해 잎을 싸고 집단으로 모여서 굶아 먹다가 이후에는

잎 전체에 피해를 주어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인근 나무로 옮겨가며 빠르게 피해를 확산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

이에 담양군은 유충발생 2화기 도래에 따라 자체방제단 3개조를 투입해 가로수, 공원, 산림의 왕벚나무 등 활엽수류 약 3,000여 주의 방제작업

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약을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와 함께 잠복소를 설치하는 물리적 방제작업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활동에 최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장성군, '쾌적한 주거환경' 만든다

### 취약가구 방역서비스 및 정리수납 코칭

장성군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군 드림스타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정에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일 소독 및 구충 방역서비스 전문업체인 ㈜세스코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가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쥐, 진드기, 바퀴벌레 등 해충을 박멸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방역서비스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24가구를 대상으로 9월 중순경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군 드림스타트는 드림아동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방역서비스를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정리수납 코칭 프로그램인 '척척작작'도 추진한다.

장성=박종영 기자

## 나주시, '제7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

### 10월 11일부터 3일 간 금성관 일대서

나주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금성관 일대에서 '역사가 있는 건축, 살고 싶은 집 한옥'이라는 주제로 '제7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개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남도가 주최하고 나주시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양식인 한옥자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 증진을 통해 한옥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옥의 대중화, 지속적인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한옥박람회는 지난 1~6회까지 전남 영광군 주관으로 개최됐으나, 이번 회부터 전남도가 실시한 박람회 개최지 희망 조사를 통해 지난 4월 8일 나주시가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나주시는 특히 지난 해 12월 북방문(北望門) 끝으로 복원을 마무리한

나주시 4대문을 비롯해 박람회 개최 장소인 금성관과 인근 나주복사나아, 나주향교 등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재가 잘 보존돼있을 뿐만 아니라, 읍성권역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통한 원도심 내 한옥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박람회 취지에 부합한 최적지라는 평가다.

또한 같은 기간 개최 예정인 '제7회 2019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와 나발레 라문화센터에서 진행될 '제6회 전라남도 천황지디자인전'과 연계해,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날 8일 이번 박람회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전문 대행업체(㈜에이피코퍼레이션, ㈜마더이오)를 선정,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박람회장 전시·체험 행사 등 세부 프로

그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옥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장인 작품을 비롯한 나전칠기 등 지역 공예인 작품, 지역대학교(전북대, 조선대) 전통한옥모형 등 다양한 전시행사(5종)가 마련된다.

또한 제외장이 직접 시연하고 직접 기와를 제작해보는 '제와 체험'을 비롯한 △대패질 △한옥 목구조 결합 △전통 대장간 △단청그리기 등 관람객이 평소 접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인규 시장은 "나주시 4대문 복원, 읍성권 한옥마을 조성, 기존 한옥문화재 등 우수한 한옥 건축자산과 공간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나주의 한옥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옥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 한옥 건축기술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이번 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가겠다"고 밝혔다.



## 함평군보건소 '우리 마을 건강쉼터' 운영

함평군보건소가 오는 9월 말까지 지역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우리 마을 건강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운동 유도 및 금주·금연 등의 건강생활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보건소는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해 각종 건강 상담과 보건교

육, 근력강화운동 등을 총 6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정명희 함평군보건소장은 "주민의 건강이 곧 지역발전의 기초"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보건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